



[경제종합] 지배구조 개선 오뚜기 보수적 이미지 혁신 04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05.27 (-14.23)	코스닥	712.56 (-6.31)
금리 (연이자율)	3.844 (+0.007)	환율 (원/달러)	1356.60 (+1.90) (22일)

멀어지는 '반도체 비전 2030'

TSMC, 투자 공세에 '세금족쇄' 삼성 고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조격차'를 본격화하면서...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 대만 매체는 테슬라가...

대만 매체는 수주 물량도 상당 수준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성과 부진 3나노 기술 우위에도 수율 문제 EUV장비·생산능력 등도 부족

테슬라 등 주요 고객사도 빼앗겨 '반도체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그동안 각별한 사이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TSMC 팹 16 /TSMC

지지는 않았다는 것.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대만 매체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폄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TSMC가 수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단 공정은 수율을 40~50% 정도만 확보해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좀처럼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데에는 우려가 남아있다...

고객사 이탈도 현실이다. 올 초 퀄컴이 스냅드래곤 81세대를 삼성전자에 맡겼다가...

유명 투자자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헤서웨이가 TSMC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4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FTX 사태 발, 비트코인 연일 하락세

22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쇼호스트에 보험설계사까지 무한 영역 확장

신기술 푸테크

(下) 가상인간

AI 쇼호스트, 유통가 라방 진출 금융권도 모델로 잇따라 투입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상인간이 모델, 아이돌 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쇼호스트,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상인간은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2일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조4000억원 였던 시장규모는 오는 2025년에는 14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인간, 라방 진행자로 속속 투입

가상인간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빠르게 확산됐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상인간인 미국의 릴 미켈라는 미국 AI 개발 스타트업인 브러드(Bru d)가 2016년 선보였다...

6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선 '로지'가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상인간은 최근 AI 쇼호스트로 변신해 라이브방송(라방)에 나서고 있다. 편의점 GS25는 지난 3월 삼각김밥 개편 라이브방송을 진행할 때 네오엔터덕스의 가상인간인 '리아'를 진행자로 정했다...

(2면에 계속)

/채윤정 기자 echo@

메트로경제 '2022 뉴테크놀로지 포럼' 개최

오늘 14:00~17:00,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관련기사 L8)

은행 '요주의여신' 잔액 20%↑... 잠재부실 우려

4대 시중은행 연체율 0.14~0.2% 고금리 여파 대출이자 부담에 상승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2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3분기 연체율은 0.14~0.2%로 집계됐다...

0.19%)과 비교해 하단은 0.03%포인트(p), 상단은 0.01%p 상승했다.

◆시중은행 연체율 상승

KB국민은행은 3분기 기준 연체율이 0.14%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02%p 올라갔고,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0.19%에서 0.2%로 0.01%p 상승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를 시행했다...

은행의 연체율도 최저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연체율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중반 이후 이자 등 채무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차주들이 늘면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내년 초에는 연체율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4대 은행은 잠재부실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주의여신 잔액도 증가하고 있다. 요주의여신 잔액은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대출금을 말한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정쟁에 예산·법안 뒷받침 적기 놓치면 국민 피해" /사진 뉴스스 ▲유승민,尹 대북정책에 "잘게 말하면 순진, 나쁘게 말하면 바보"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 없어"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軍, 북한 도발 대비 경계태세 유지



▲野 "저희 사전에 준예산 없어... 최악의 경우 감액만으로 처리" ▲이재명 "정부여당, '빛내서 집사라' 정책 올린... 반성하라" /사진 뉴스스